Entertainment p/12

이더위에 가발 쓰고 다녀요

metro
메트로 2013년 8월 7일 수요일 제27[illegible]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A로드 211경기 출장정지

'블랙아웃 공포' 부채로 날려요.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에너지 국민 댄스'를 추며 전력 소비가 많은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부채를 이용하자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예비 전력이 400만kW 이하로 내려가면 전일 학원 조치,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 중지 등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하기로 의결했다. 전력거래소는 기상청이 폭염을 예보한 이번주 100만kW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부장님 안피운다'에 10만원 베팅

직장동료 금연도전에 돈 거는 동양증권 이색펀드 화제 …다른 기업도 벤치마킹

지난달 말 서울 을지로 한 호프집. 김 부장은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무리한 기념으로 가진 회식 자리에서 담배 한 개비 꺼내 물었다가 부하들에게 핀잔을 당했다.

"부장님 담배 피우시면 저희가 큰일 난다고요. 부장님한테 베팅했단 말이에요."

당돌한 부하 직원들의 요구에 김 부장은 화를 내기는커녕 머쓱한 표정으로 담뱃갑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회식 자리에서 담배를 부하 직원에게 빼앗기고도 상사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 바로 직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게임 방식의 금연펀드 프로그램을 도입한 동양증권의 회식자리 모습이다.

흡연자에게 가혹한 시대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회사원들이 건물 밖으로 밀려나와 음습한 골목 한구석에서 죄짓듯이 담배를 태우거나 회사 한구석에 마련된 공간에 삼삼오오 모여 담배연기로 구름을 만드는 모습은 어느새 일상다반사가 됐다.

회사 내 '걸어다니는 금연' 벽, 흡연자 인사고과 우대 와 같은 살벌한 문구들도 흡연자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건강에도 좋지 않고 자의로나 타의로나 어차피 끊어야 할 담배라면 즐겁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동양증권의 서장원 기업문화팀 차장은 "금연에서도 '펀(fun, 재미)'을 찾아라"며 직원들끼리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사내 금연 비결을 공개했다.

서 차장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에 걸쳐 사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연펀드를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4차 펀드의 금연 성공률은 75%로 예년의 38~45%에서 훌쩍 뛰었다.

직원들 반응을 살피며 각 회마다 운영방식에 조금씩 변화를 줬더니 직원들의 호응도가 점점 높아졌다.

특히 2차 때부터 도입한 금연서포터즈펀드가 사내 문화를 바꿨다. 금연펀드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도 펀드에 도전하는 흡연자들 중 누가 금연에 성공할지 베팅하는 서포터즈펀드에 들게 했더니 직원들이 너나없이 서로 금연하라고 성화다.

기업이나 기관의 관심도 쏟아졌다. 국민연금, 사학연금기금 등이 금연펀드 운용 방식이 흥미롭다며 찾아왔다. 최근에는 국내 메이저 게임업체인 넥슨이 직원들 간 게임 방식을 도입한 점에 주목하며 관심을 표했다. 서 차장은 "이런 작은 차이가 값을 따질 수 없는 무형의 경쟁력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2011년에 금연펀드를 처음 시행할 때는 유사한 사내 금연펀드를 운영하는 여느 증권사와 차별점이 없었다. 직원들이 10만~30만원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회사에서 이를 안정적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넣었다가 성공 여부에 따라 환급과 이자를 돌려줬다.

2회부터 금연서포터즈펀드로 비흡연 직원들의 참여를 끌어냈고 4차는 1인당 하루 담뱃값 2500원씩 적립식펀드에 투자해 실제로 돈을 굴리면서 고유한 사내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금연펀드에 가입해놓고 회사 눈을 피해 안 보는 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직원도 있지 않을까?

짓궂은 질문에 서 차장은 "기본적으로 회사 직원들을 믿자는 분위기"라며 "지금처럼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직원들에게 재미와 신뢰를 주는 이런 사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오히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장기적인 기업 성과로도 연결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우윳값 인상' 팔짱낀 정부

내일부터 ℓ당 250원 인상 …업체에 자제 요청도 안해

우윳값 인상 시기가 바싹 다가온 가운데 정부 부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일부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원우유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힌 주요 우유업체 등에 대해 가격 인상 과정을 조사 중이며, 최악의 경우 가격 인하 유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가 나가자마자 "해당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정부가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우윳값 인상에 강경하게 대처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번 우윳값 인상의 뜨거운 감자는 인상폭이다. 올해 첫 시행된 원유가격 연동제에 따라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원유 기본 가격은 ℓ당 940원으로 기존 834원보다 106원 뛰었지만,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이보다 높은 ℓ당 250원 인상안을 발표했다. 매일유업은 8일부터, 서울우유는 9일부터 가격을 올릴 예정으로 남양유업과 동원 F&B 역시 우윳값 인상을 원칙으로 그 시기와 인상 폭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업계가 원유값 인상을 명분으로 부당이득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윳값 인상을 중단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우윳값 인상과 관련해 이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계 관계자를 불러 가격 점검을 한 바 있지만 우유 업체에는 별도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유 업계는 기획재정부의 해명 자료를 문장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인상안을 발표한 우유 업체 한 관계자는 "만 2년간 포장재값이나 운송에 따른 유류비 등 유제품 제조비가 꾸준히 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보람기자 kwon@

보험금 더 타낼 욕심에 친딸 하반신 마비시킨 '3대 일가족 사기단'

3대에 걸친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사기단은 세 살짜리 조카를 범행에 끌어들이고 보험사기를 위해 고의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되는 등 최절이 나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의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금모(여·45)씨를 구속하고 오모(여·68)씨 등 일가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금씨 일가족 13명은 2005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6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할머니 오씨와 다섯 남매로 구성된 이들은 배우자나 연인은 물론이고 친자식까지 보험사기에 이용했다. 금씨의 여동생은 2005년 7월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에서 당시 세 살 된 여조카를 승용차에 태우고서 청소차 컨테이너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탑승객을 7명으로 부풀려 총 95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씨는 또 2011년 3월에는 13년 전 이혼하면서 헤어진 친딸 A(16)양을 만나 1억7000만여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시킨 뒤 동거남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 A양에게 상해를 입히고서 58일간 병원 신세를 지게 하기도 했다.

금씨는 또 2011년 12월 자신의 주거지인 3층 빌라 창틀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돼 1억3000여 만원의 보험금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가족이 가입한 상해·장애 등의 보험상품은 총 117개(보험사 13곳)였으며 월 150만원 상당의 보험료는 부당 수령한 보험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리기자

국정원 국조 23일까지 연장

증인·참고인은 오늘 확정

여야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 기간을 연장하고 증인신문 기간을 3차례 확보하는 데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증인·참고인 채택은 7일 여야가 명단을 다시 한 번 교환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국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야 6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14일과 19일, 21일 오전 10시 총 세 차례 청문회를 열어 증인을 신문하고 23일 회의를 소집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7일 오전까지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으며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명단 확정 및 새로 합의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으나 이날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과 불석 보장 문제에서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증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윤휘은기자 [illegible]

밝게 웃는 여야 간사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6일 합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서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공단 폐쇄로 가나

정부, 이번주부터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 지급 … 단전·단수 취할 가능성

이르면 이번주부터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남북 경협 보험금이 지급될 전망이어서 정부가 예고한 중대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입주 기업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성공단 내 기업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위권'을 넘겨받는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오늘은 보험금 최종 지급 결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며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협 보험금 규모는 약 2700억원이다. 정부 측은 경협 보험금 지급은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하는 조치인 동시에 사실상 공단에서 기업이 철수한다는 의미도 포함한 것으로 정부가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하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본다는 입장이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북측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협 보험금 지급을 신호탄으로 다른 중대조치를 잇따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어지는 중대조치는 단전·단수 등이 거론된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조치를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지만 단전은 하나의 수순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류길재 장관의 회담 제의 9일 만에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대화·협력을 추진할 의지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용국기자 [illegible]

박 대통령 '5자회담' 역제안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김기춘(왼쪽) 신임 비서실장 등 내정한 새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걸어가며 정홍원(오른쪽) 총리와 이야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환영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대 1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하실관계가 대해 [illegible] 사과이라며 당초 제안한 안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위기의 은행' 경쟁력 키우려면…

기자 수첩

김민지

<경제산업부 기자>

최근 신문 경제면은 우울한 뉴스로 도배된 듯하다. 시중은행 2분기 실적 반 토막, '하반기 적자 점포 80곳 정리'등 제목만 봐도 섬뜩하다. 특히 국내 금융권을 주름잡는 4대 금융지주사(KB·신한·우리·하나)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은행의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2분기 당기순이익(잠정치)은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조원이나 줄었다.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민 금융 지원에 대한 기대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라 자칫 소비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만 점점 커지고 있어 금융사들의 속앓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려면 미온적인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마다 직격탄을 맞은 국내 금융시장을 구하기 위해선 비용 절감은 물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써 은행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 당국 역시 뒷북 대응으로 상황을 모면하기보다는 금융사들의 자신 건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과 금융사들은 '뼈를 깎는다'는 비상한 각오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무원 100만명 눈앞

현재 99만1481명 올해 1058명 늘어

공무원 정원 100만 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상반기 말 현재 우리나라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만14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99만423명에 비해 1058명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은 61만2215명으로 61.7%를 차지했다.

중앙 부처 일반행정에 9만6307명(9.7%), 교육에 34만6446명(34.9%), 법무와 경찰·소방 등 치안에 13만8167명(13.9%), 우정사업본부에 3만1300명(3.2%)이 각각 배치돼 있다. 지방공무원은 35.8%인 35만4863명이다.

입법부에는 3974명, 사법부에는 1만7431명, 헌법재판소에는 277명, 선거관리위원회에는 2721명이 각각 배정돼 있다.

올해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등 70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면 공무원 정원은 조만간 100만 명을 넘어설 예정이다. /김유리기자

호서전문학교 신·편입생 모집

서울호서전문학교는 2013년도 2학기 학사학위 주 1일 과정 신·편입생과 시간제 등록생을 16일까지 모집한다.

주 1일 수업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주로 학업 시기를 놓친 20~40대 직장인과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다. 현재 탤런트 이상아, 쇼핑호스트 하도성, 김예분씨 등이 재학 중이다.

개강일은 19일이며 원서 접수는 홈페이지와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문의 uni.shoseo.ac.kr

칠흑 같은 한낮 하늘서 천둥·번개 동반 기습 폭우

도깨비 날씨에 시민들 '멘붕'

6일 정오를 앞둔 시각 서울 하늘이 어두컴컴한 구름으로 뒤덮이면서 이내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지구 종말이 온 것 같은 날씨다" "점심 먹고 퇴근해야 할 분위기"라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이날 중부지방에는 장마가 끝났다는 기상청 예보가 무색하게 시간당 최대 60㎜의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기상청은 이날 낮 12시20분을 기해 인천 강화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 북부 서해안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강화지역에는 시간당 60㎜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렸다. 인천지역에서도 낮 12시 40분부터 시간당 30㎜ 이상 소나기가 쏟아졌다. 서울지역은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영등포·금천·구로·동대문·종로구에 45~50㎜의 폭우가 퍼부었다.

기상청은 "전날 소나기가 내린 후 상층에 한기가 약하게 남은 상황에서 하층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됐다"며 "이 두 공기층이 만나는 지점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 증산철교 하부 도로와 청계천 동 일부 도로를 통제했다. /김유리기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6일 낮 서울 광화문 인근에 폭우와 함께 번개가 내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고액 영어캠프 전면 폐쇄

대학·고교서 불법 운영… 일부 대학은 3주 과정에 수백만원 받기도

대학과 고등학교가 불법 운영하는 고액 초·중·고교생 영어캠프가 성행하고 있어 교육부가 폐쇄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는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현황과 폐쇄 계획을 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교육부는 캠프 운영 전인 대학에는 학습비를 환불하도록 했고 진행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남은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에 폐쇄 계획을 내지 않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과정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자체 조사와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를 보면 26개 대학이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이다.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05만원짜리 영어캠프를 진행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는 각각 3주간 298만원, 297만원을 받고 초·중등 학생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228만5000원), 제주대(95만원), 전주교대(129만원) 등 국립대도 포함돼 있었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송판 격파 재밌어요! 6일 경기도 평택 평생국제교류센터에서 주한미군 자녀와 한국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한·미 어린이 서머스쿨이 열려 한 어린이가 태권도 격파에 도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둥이' 거짓 출생신고해 양육수당 타낸 미혼여성

출산 경험이 있는 30대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고 허위 신고해 양육수당을 가로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가짜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출생신고한 뒤 양육수당을 받아낸 A(34·여)씨를 사문서위조 및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대전의 한 구청을 찾아 2011년 6월 30일 출생한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속여 올3월부터 10회에 걸쳐 양육수당 등 130만원을 부정 수급받은 혐의다.

'알바노조' 공식 출범 알바연대가 6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알바노조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가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방철

인도의 문호 타고르 사망

1941년 8월 7일 시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0세. 인도 벵골주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타고르는 15세 때부터 시를 썼는데, 문학뿐만 아니라 여러 예술 분야와 교육에 큰 업적을 세운 인도의 거인이었다. 인도의 독립운동에도 활약했던 타고르는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의 시집 '기탄잘리'로 동양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그는 또 일제 식민지 하에 신음하던 우리나라 국민에게 '동방의 등불'이라는 희망의 시를 전해준 우정의 시인이었다.

전두환측 "원래 재산 많았다"

"취임전 장인이 불려줘" 검찰 수사에 적극 반박

일가족이 미납 추징금 환수 대상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취임 전부터 원래 재산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간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6일 개인 의견을 전제로 A4용지 7장 분량의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민 전 비서관에 따르면 전씨 일가 재산은 전 전 대통령 취임 전 장인인 고 이규동씨가 불려줬다.

검찰이 지난달 말 압류한 이순자 여사 명의의 억대 연금보험이나 경기 오산 임대 임야, 서울 서초동 땅 등이 모두 장인 이규동씨가 자녀들에게 분배하거나 장남 창석씨 명의로 1960~70년대 취득했다가 명의 변경해 소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전씨 측이 불법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블루 아도니스' 계좌를 관리하는 아랍은행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자금원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김유리기자

어린이집에 장학지도사 파견

부산시 전국 첫 '맞춤형 보육장학제' 내달 시행 … 유아교육전문가 공모

어린이집이 다음달부터 장학 지도를 받게 된다.

부산시는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9월부터 부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장학제'(이하 맞춤형 보육장학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수행한 부산시 보육 장학 지표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최초로 맞춤형 보육 장학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도 운영은 부산시 보육지원센터에서 맡는다.

센터는 이달 중 보육 전문가인 보육 장학지도사 5명을 공개 모집한 뒤 9월부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본격 장학 지도 활동을 할 계획이다. 장학 지도는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입장에서 여러 사항을 상담·조언해줄 수 있는 컨설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보육 과정, 보육 환경, 영양, 안전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어린이집의 자체 사전 진단과 장학지도사의 현장 방문 지도, 사후 확인 및 사이버 상담 등을 통해 보육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학 지도와 동시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준비도 할 수 있어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어린이집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학지도사는 보육 또는 유아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 경력 5년을 포함한 보육 또는 유아 교육 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달 중 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장학지도사 선발 후 맞춤형 보육장학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장학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하반기 중 150곳을 우선 시행하고, 3년 내 모든 어린이집에 1회 이상 장학 지도를 할 방침이다.

또 학부모들에게 장학 지도에 참여한 어린이집 명단 공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장학 지도 결과 우수한 어린이집 및 교사 포상, 장학관이 교사 업무 연찬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우기자 cyclone@metroseoul.co.kr

뼛속까지 시원해요 폭염경보가 발령된 6일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부전계곡에서 농활(농촌 봉사활동)에 나선 부산 동명대 학생들이 계곡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함양군청 지용진 주무관 제공

아동에 공연장 에티켓 가르쳐요

12일까지 참가자 모집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센터장 허경희)는 오는 26일부터 5일간 부산문화회관에서 미취학 어린이(만 5~6세)를 대상으로 공연 예절에 대한 기초 교육 및 현장 견학을 할 수 있는 '2013 어린이 아카데미 공연장 신사숙녀' 교육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재단은 가족 중심의 공연장 관람 문화의 확산과 미취학 어린이의 공연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부산문화회관과 공동 주관으로 음악 공연, 연극, 동화 구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기획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부산문화회관장 명의의 수료증과 '공연장 신사숙녀 ID카드'가 발급되며 부산문화회관과 공연장 입장을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문화 예술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산 시내 만 5~6세 미취학 어린이 및 부모이며 접수 기간은 8월 12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bearte.or.kr) 참여마당에서 가능하다.

"푹푹찌는 더위…연근이 보약"

폭염 속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연근이 가장 좋다는 전문의 견해가 나와 눈길을 끈다.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센터 김경민 가정의학전문의가 전하는 8월의 건강 소식에 따르면 "연근을 자를 때 보이는 끈적끈적한 실 같은 것은 단백질의 일종이며 점액 성분인 뮤틴(mutin)은 위벽을 보호하고 단백질 지방의 소화를 촉진하는 여름철 건강식품"이라고 소개했다.

연근은 저녁에 담질이 굳어오면 뮤틴이 붙어서 담이 분해되는 속도를 억제해 혈당 조절에 좋을 뿐만 아니라 연근 속 타닌은 소염·지혈 효과가 있어 점막 부위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소화기에 염증이 있거나 코피가 잦은 사람에게 좋다는 것.

연근의 주성분은 단수화물(대부분 녹말)이며, 비타민 C(항산화 효과)와 칼륨(혈압 조절)도 상당량이 들어있다.

또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장에 쌓인 유해물질 배출을 촉진시켜 '대장암·동맥경화·고혈압'예방 효과도 탁월하다고 소개했다.

연근은 색깔이 희고 부드러우며, 무겁고 구멍이 작을수록 상품성이 좋다. 연근을 자르면 절단 부위가 검어지는데 이는 타닌이 산화되기 때문으로 식초물에 담가두면 변색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씹히는 느낌이 아삭아삭해지고 떫은맛이 사라져 맛이 한결 좋아진다. 남은 연근은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은 보관이 가능하다.

'춤 전설' 피나 바우쉬 감동 재현하실 분~

LIG아트홀 부산은 오는 11월 피나 인 in 부산 공연을 통해 영화 피나(Pina)의 감동을 재현할 공연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세기 춤의 혁명가 피나 바우쉬의 예술 정신을 실현하고자 기획됐으며,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해 꾸밈없는 몸짓으로 2분간 자신만의 무대를 만든다.

참가 자원은 누구나 가능하며 부산 경남지역 일반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LIG아트홀 홈페이지(www.ligarthall.com)와 이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www.cineart.c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e메일(630festival@naver.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10-2981-0626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부산식약청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해운대해수욕장 및 지하철역 인근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객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 ▲부산지역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교육 등 마약 관련 기관 안내 ▲홍보 책자, 세면도구·물티슈 증정 ▲안전 상비 의약품 주의사항 안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불법 마약류 퇴치 홍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뉴시스

광안리 비보이 경연대회

수영구(구청장 박현욱)는 오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광안리 해변로에서 '광안리 비보이(B-BOY) 전국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안리 차 없는 문화의 거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비보이 대회로 전국의 실력파들이 참여해 3대3 프리스타일 경연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10일 예선을 시작으로 다음날 결선을 갖는다.

1등 팀에게는 시상금 100만원이 수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팀은 수영구청(mrsaya@naver.com·051-610-4049)으로 접수하면 된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센터 구포역으로 19일 이전한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오는 19일 구평역(2호선)에 있던 현장민원센터를 구포역(3호선)으로 이전한다.

구명역 현장민원센터는 협소한 장소로 접근이 불편했으나 구포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접근성 제고 및 민원센터 환경 개선 등으로 북·서부 부산 시민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사업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락
편집국장 조만호
부산지사장·사장 김형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90
독자센터 (02)721-9860
2001년 3월 30일 정간물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8100

"반갑다 더위야" 유통업계 여름상품 매출 80% 증가

전기 덜먹는 냉방기 불티

본격적인 폭염에 유통가의 여름 상품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4개 점은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1주일 동안 여름 인기 상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냉방기기와 선글라스, 모자, 아웃도어 샌들 등의 여름 상품 관련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늘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전력난을 우려한 에너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한층 더 강화된 기능성 상품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냉방용품의 경우 이중 구조 날개의 공기순환기, 날개 없는 선풍기 등 밤새 틀어놓아도 안전하고 소비전력이 적어 일반 선풍기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평소보다 2배 이상 판매되고 있다.

또 소형 제빙기 '아이스 메이커'는 음료, 요리 등 시원한 음식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일반 가정체에서도 주문이 이어질 정도.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매장은 '쿨맥스'와 같은 땀을 배출하고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시원한 기능성 소재의 의류를 찾는 고객들로 각 20% 이상 신장하고 있고, 여기에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메시 소재의 아쿠아슈즈는 가벼운 트레킹도 가능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 의류에서는 실내복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명 '냉장고 옷'이라고 불리는 저지(레이온) 소재에 기능과 디자인을 접목한 원피스, 바지 등이 외출복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일반 청바지와 달리 가볍고 땀 흡수가 빠른 '아이스 진', '쿨맥스 진'도 인기몰이 중이다.

아울러 남성 정장도 차가운 소재의 울(wool) 믹스 셔츠가 구김이 없고 몸에 붙지 않는 장점에 큰 호응을 얻고 있고, 반바지 착용이 가능한 기업체가 늘면서 미 면 소재의 흰색, 블루 색상이 잇따라 조기 품절되는 현상도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부산은행-신세계사이먼 업무협약 부산은행 은행장 성세환은 지난 5일 범일동 부산은행 본점 금관에서 성세환 부산은행장과 김경구 (주)신세계사이먼 대표이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거래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해운대 모래축제' 상표등록 추진

모래를 소재로 한 국내 유일의 친환경 축제인 '해운대 모래축제'가 해운대만의 고유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해운대 모래축제의 독창성과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어렵게 개발한 축제나 관련 문화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모방해 본래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고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운대구는 지적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 해운대 모래축제를 상표등록하기로 결정했다.

특허등록이 완료되면 대외적인 인지도나 명성에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의 유사 축제 모방을 사전에 차단해 관광특구 해운대만의 고유 브랜드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내년에는 더욱 특색 있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해운대 모래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주상인연합회 "서울 등축제 중단하라" 6일 오전 진주상인연합회원들은 경남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남강유등축제를 베낀 서울 등 축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가덕 신공항 건설기원 오늘 부산노래 50년 쇼

부산시는 (사)김해공항가덕이전 시민추진단(상임공동대표 조성제) 및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7일 저녁 7시부터 해운대해수욕장 특설 무대에서 부산 시민과 관광객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기원 부산노래 50년 쇼'를 펼친다.

부산바다축제 기간 중에 열리는 이날 '부산노래 50년 쇼'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부산의 애환을 담은 가요로 사랑받는 '이별의 부산정거장', '용두산엘레지', '해운대 엘레지',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을 노래하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산 시민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기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내로라하는 가수들이 총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김해공항 가덕 이전' 로고송을 불러 부산을 방문한 전국 관광객들에게 신공항 건설의 열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쇼 시작에 앞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 관련 다이내믹한 동영상을 방영해 흥을 돋우고, 로고송 합창이 끝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염원을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박찬욱·문소리…영화 특강 어때요

내달 7~8일 부산서 개최

부산영상위원회와 명필름 문화재단이 9월 7~8일 2차 부산 특강을 개최한다.

영화 기술 분야의 장인들과 함께 한 4월 특강에 대한 수강생들의 높은 관심으로 기획됐다. 지난 강의에 비해 정원을 배 이상 늘렸다.

'마당을 나온 암탉',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쓴 극작가 나현 씨를 비롯해 '올드보이', '스토커'의 박찬욱(50) 감독, '부러진 화살'의 정지영(67) 감독, 다큐멘터리 '송환', '끝나지 않는 전쟁'의 김동원(51) 감독이 강사로 나선다.

영화배우 문소리(39), 권혁효(43) '건축학개론', '마당을 나온 암탉' 등을 제작한 명필름 심재명(50)·이은(52) 대표 등도 참여해 시나리오 연출 다큐멘터리 연기·제작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영화인 및 영화 전공 학생, 영화를 사랑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 30일까지 명필름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지역 마을 살리기 추진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

부산시는 7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청년일자리지원단, 부산지역 대학생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역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소개, 마실지기 선언, 마을만들기 네트워킹 설명에 이어 마을만들기 초청강연, 마실지기 역할과 향후일정 소개 등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천문화마을에서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생 30명이 사회공헌실습체험 봉사활동을 벌인다.

"욱일기 사용 문제없다"

日정부, 견해 공식화 추진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의 상징물로 여겨지는 욱일기의 사용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부 견해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국기인 일장기(히노마루)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는 태평양전쟁 등 일본이 근대 이래 벌인 각종 전쟁 때 군기로 사용됐다. 현재 자위대도 이 깃발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욱일기의 사용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한국 등 주변국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처사라는 비판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욱일기는 지난달 말 동아시아 축구대회 한일전 때 일본 응원석에서 등장해 한국 응원단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축구월드컵 때는 대회조직위가 스타디움에서의 욱일기 소지를 금지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나치식 개헌'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소 부총리는 이제까지 8·15 때는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 방침을 답습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베조스에게 팔렸어요" 5일(현지시간) 매각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워싱턴포스트 사옥 전면에 설치된 전광판에 '베조스에게 팔림' 이라는 문구가 떠 있다. 작은 사진은 제프 베조스. /AFP 연합뉴스

136년 역사 워싱턴포스트 경영난에 매각…홀로 웃은 최대주주 버핏

이 와중에 9080% 수익

장기투자로 대박 터뜨려 새 주인은 아마존 창업자

136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경영난으로 매각됐다. 워싱턴포스트의 새 주인은 온라인쇼핑몰 아마존닷컴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조스(49).

5일(현지시간) 베조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워싱턴포스트를 2억5000만 달러(약 2784억원)에 인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존닷컴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워싱턴포스트를 사들였다"면서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이사회 의장 겸 CEO 도널드 그레이엄은 "수년간 경영난에 처하면서 다른 소유주가 포스트를 더 잘 경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온 끝에 매각을 결심했다"며 "베조스는 첨단 기술과 경영에서 검증된 천재로 포스트의 멋진 새 소유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광고 매출 하락과 구독자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어왔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워싱턴포스트는 사명을 변경할 계획이다.

워싱턴포스트의 매각 소식으로 업계가 떠들썩한 기운데 신문의 최대 주주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또다른 주인'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미국의 경제전문 온라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버핏이 투자의 달인 답게 워싱턴포스트에 장기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다"고 보도했다.

버핏은 1973년부터 워싱턴포스트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2004년 그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유 주식은 170만 주까지 증가했다. 워싱턴포스트의 주가는 현재 598달러 수준으로 버핏의 주식 재산은 약 10억1000만 달러다. 그의 투자액이 11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무려 9080%에 달한다.

/조선미기자

"엄마가 때렸어요" 경찰에 신고한 9세소년

게임 말린다고 욕설까지

엄마에게 욕을 하다 뺨을 맞은 초등학생이 엄마를 경찰에 신고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6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9세 아들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로 조모(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5일 오전 8시10분께 수원시 구운동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 김모(9)군에게 밥을 먹으라고 재촉했다 김군이 "×× 짜증 나네"라고 욕설을 하자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두 대 때린 혐의다.

김군은 "엄마가 때렸다"며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112 신고를 해 조사를 받았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게임만 하면서 욕을 해 화가 나서 때렸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유리기자

market index <(7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1905.82 (-9.00)	557.36 (+0.76)	2.92 (변동없음)	1115.50 (+1.00)

뉴스&뉴스

이달 기준금리 동결될 전망

●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모두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채권 전문가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8월 기준금리(현재 연 2.50%) 동결을 예상했다고 6일 밝혔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의 호조와 미국 경제지표 개선 등 기준금리를 올릴 만한 요인도 있으나 중국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김현정기자

7월 수입차 판매량 전년비 39% 급증

지난달 수입차 판매량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팔린 수입차가 등록대수 기준 1만4953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9%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과 견주어도 16.9% 늘어난 수치다. 이로써 1~7월 누적 판매량은 8만94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3007대보다 22.5%나 증가했다.

브랜드별로는 BMW가 3023대를 팔아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도 BMW의 520d(848대)가 차지했다. 이어 폭스바겐 2696대, 메르세데스 벤츠 2567대, 아우디 1776대, 도요타 737대 등이 2~5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입차 가격이 많이 떨어져 국산차와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수입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장윤희기자

휴가철 환전수수료 내려가네

시중은행 최대 70% 할인행사…우리은행 "5억 여행보험도 무료"

주요 시중은행들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환전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은행별로 환율 우대 혜택과 부가 서비스가 조금씩 다른 만큼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다.

우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 달러화의 경우 할인 혜택이 대부분 비슷하다. 국민·하나·외환·우리·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대 70%까지 환율 수수료 할인 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환전 수수료 할인율은 우리은행이 높은 편이다. 우리은행은 9월 17일까지 진행하는 '여름 환전 대축제'를 통해 500달러 이상 환전하면 엔화나 유로화 환전 수수료를 60% 할인해준다.

더불어 최근 2년 동안 우리은행 환전 실적이 있을 경우 우대 수수료 10%포인트가 추가돼 최대 70%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달러, 엔화, 유로화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환전한다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괜찮다. 두 은행은 공동으로 8월 말까지 '건강한 여름나기 환전 페스티벌'을 진행해 기타 통화 환전 수수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기본 수수료 할인율이 40%인데다 운동 강좌 등록증, 항공권 호텔 예약증을 가져오면 10%포인트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환전 고객이 원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보장해주는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들쭉날쭉하는 환율이 신경 쓰인다면 원하는 환율을 미리 정해둘 수도 있다.

농협은행 '스마트 환율예약 환전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환율 예약 환전을 신청한 후 현찰 매도율이 예약 환율과 일치하거나 그 이하가 될 경우 자동으로 환전 거래가 체결된다. /김민지기자 mwj@metroseoul.co.kr

삼성전자 세계최초 '3D 수직구조 낸드플래시' 양산 삼성전자는 6일 세계 최초로 반도체 미세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신개념의 '3차원 수직구조 낸드(3D V-NAND) 플래시 메모리'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존 20나노미터(nm)급 제품 대비 집적도가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연합뉴스

셀트리온 안일 '램시마 랠리'

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의 관절염치료제를 본떠 만든 국산 1호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제품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사흘 연속 올랐다.

6일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 거래일보다 5.04% 오른 4만4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램시마 임상시험을 신청했다는 소식에 6.77% 급등하는 등 3거래일간 15% 넘게 올랐다. 임상시험은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민정기자

팬텍 '지문인식 LTE-A폰' 공개
팬텍은 세계 최초로 지문인식 기능을 지원하는 LTE-A 스마트폰 '베가 LTE-A'를 6일 공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순부터 SK텔레콤을 통해 판매된다 /팬텍 제공

오바마 '애플보호'에 자국도 해외도 '버럭'

해외에서도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부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미국 기업에 대한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미국 기업의 국제 위상과 신뢰성 추락을 우려했다.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개입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송승희기자

실험실서 만든 인공소고기 4억!

조선미기자의 글로벌 이코노미

세계 최초 줄기세포 배양육 제조 성공
연구진 "10년내 상용화, 육류수요 대체"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한 가운데 미래 식량 자원을 책임질 '비밀병기'가 나타났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요리 축제에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인공 소고기를 넣은 햄버거가 세계 최초로 등장했다.

이날 시식 행사를 통해 인공 소고기를 맛본 요리 전문가들은 "고기 맛과 비슷하지만 육즙이 부족하고 기름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인공 소고기는 소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해 배양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대학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키워낸 쌀 한 톨 크기의 인공육 조직 3000개를 다져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인공 소고기. /데일리 메일

연구진은 인공육이 10년 안에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해 세계 육류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육 생산 비용이 25만 파운드(약 4억2000만원)에 달해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또 '가짜 고기'에 대한 거부감과 식품 안전성도 숙제로 남아있다.

인공육과 함께 곤충 요리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최근 미국 뉴욕의 곤충 요리 전문점에서는 멕시코 요리처럼 튀겨낸 곤충 튀김과 다양한 소스로 버무린 지렁이 샐러드, 애벌레를 곁들인 수프 등이 개성 만점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FAO는 지난 5월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투수'로 곤충을 꼽기도 했다. 지구 상 곤충 가운데 식용 가능한 곤충은 1900여 종이며, 한국에서는 메뚜기와 누에 번데기가 식용으로 인정된다.

/seenm@metroseoul.co.kr

노년 의료비 부담 덜어줄 '보험효자'

AIG손보 '명품부모님보험'

노년 의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년기에 지출하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년 의료비는 2000년 약 2조원에 불과했으나 10년 후 약 13조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 지출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31.6%로 확대됐다. 이 중 75세 이상의 노인 의료비가 5조4541억원으로 전체 노인 의료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노인들은 소소한 병원비도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은 이젠 노년층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AIG손해보험의 '명품부모님보험'은 노년층을 위한 노년 전문 보험으로 출시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상품은 노년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정각질환과 인공관절 수술비는 물론 각종 상해 질병을 모두 보장해준다. 골절, 화상의 경우 지급률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암·뇌출중·급성심근경색 등의 중병은 최초 1회에 한해 각각 500만원씩 지급한다.

백내장·중이염 등의 사정각질환 수술비는 50만원, 인공관절 수술비는 3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60세 남자 기준 월 2만50원이며 50~75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화(1644-9839)를 통해 문의 가능하며 홈페이지(www.aig.co.kr)에서 자신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지기자 mary@

뉴스 & 뉴스

KT 6일간 6만 가입자 이탈

● 6일 영업 정지가 끝난 KT에서 가입자 6만여 명이 이탈했다.

영업 정지 기간인 지난달 30일~이달 5일 SK텔레콤은 2만7126명, LGU+는 3만294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다.

하지만 전체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는 13만3950건에 불과해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1만9136건에 그쳤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 기준으로 삼는 1일 2만4000건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 기간 SK텔레콤과 LGU+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인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의 보조금은 20만~25만원으로, 영업 정지 기간에 불법 보조금을 이용한 무리한 영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훈기자

구직자 '북캉스'로 충전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 컨설턴트들이 추천하는 '의욕 살리는 책들'

여름 휴가철은 구직자들에게는 시련의 계절이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휴가 떠나는 사람들의 즐거운 모습까지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장애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럴 땐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도서 휴가'를 떠나 보면 어떨까. 취업포털 커리어의 전문 컨설턴트들이 구직 활동에 의욕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책들을 추천했다.

▶박수정 컨설턴트-꾸뻬 씨의 행복 여행

프랑수아 를로르 저/오유란 역/오래된 미래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의 아이콘'으로 폄하하는 우울에 빠지는 구직자들이 간혹 있다.

이럴 때는 꾸뻬 씨와 함께 '행복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여행길을 동행하며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삶과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의미를 곱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꾸뻬 씨가 발견한 '배움20. 행복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지금의 힘든 상황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다.

▶최수진 컨설턴트-습관의 힘

찰스 두히그 저/강주헌 역/갤리온

▶▶요즘 기업은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 책을 읽으며 나쁜 줄 알면서도 반복되는 자신의 행동 메커니즘을 성찰해보면 면접관에게 들려줄 훌륭한 이야깃거리가 생길 수 있다.

하나하나의 습관이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결국 건강과 생산성, 경제적 안정과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저자의 조언도 구직 활동에 힘을 더한다.

특히 하버드 MBA 출신이며 뉴욕타임스 심층보도 전문 기자인 저자가 초콜릿칩 쿠키를 매일 먹는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기획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홍은희 컨설턴트-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김수영 저/웅진지식하우스

▶▶자신의 진로, 꿈,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도 막연히 고민만 할 뿐 선택하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런 고민을 하는 구직자들에게 저자의 사례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자는 '왕따', '가출'이라는 암울했던 과거와 이별하고 실업계 고교 출신 최초로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꿈행이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 책은 20대 중반 암 진단을 계기로 꿈 찾기로 나서며 현재는 여행가, 작가, 사업가, 마케터, 스타강사, 블로거, 번역가, 사진작가, 다큐멘터리 제작자, 요가강사, 인도 발리우드 영화배우, 예술가, 기획자 등의 83가지 꿈 리스트 목표 중 48개의 꿈을 이룬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최고 시속 무려 325km 람보르기니 서울은 가야르도 LP570-4 슈퍼레제라 에디지오네 테크니카를 6일 선보였다. 5.2ℓ V10기통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570마력, 최대토크 55.1kg·m의 성능을 갖췄다. 최고 시속은 325km. 가격은 3억원 후반대다. /손진영기자

글자만 읽는 엉성한 독서 토론후 글쓰기 습관 필요

박성훈 기자의 두잡 강의 체험기

한우리독서지도사(3)

"우리 아이는 책은 많이 보는데 창의력은 영…"

자녀를 둔 부모의 공통적인 고민 중 하나다.

책을 봐도 보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우리 독서지도사 수업 3주차에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책을 보고 난 뒤, 즉 독후 활동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단순히 독후감을 쓰는 차원이 아니라 만화나 그림도 좋으니 책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이 토론 후 글쓰기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을 다루는 책을 읽게 했다고 하면 '일본 사람이 왜 조선을 침범했을까'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할 때의 기분은 어땠을까' '거북선과 같은 독특한 모양의 배를 만든 이유는 무엇까' 등의 문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게 하는 것이다. 토론에서 얻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생각으로 가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다. 즉 한국 교육계가 중시해왔던 결과 중심의 글쓰기에서 과정 중심의 글쓰기로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수업은 일반 직장인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정 중심의 글쓰기는 누구나 갖춰야 할 경쟁력이 된 까닭이다.

정보화사회가 고도화할수록 창의적 사고를 기반한 노동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능력을 기르려면 과정 중심의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북이 모양의 배에 뾰족한 바늘이 달린 지붕을 씌운 이유와 당시 일본군의 근접 지상전에 능했다는 사실, 이 둘은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을까.

과정 중심의 생각과 글쓰기를 한 사람은 금세 알 수 있다. 거북선의 디자인 자체가 일본군의 발을 묶었다는 것을.

코트라 '인도의 실리콘밸리' 인턴 모집

코트라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방갈로르 무역관에서 일할 해외 인턴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선발된 연원은 방갈로르 크라이스트대에서 전문 위탁 교육을 3개월 수료한 뒤 현지 IT 소프트웨어(SW)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인턴십에 참가하게 된다.

항공료, 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보험료, 숙식비, 연수비가 지원된다. 파견 인원은 30명이며 고졸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최근 5년간 정부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커리어 제공

푸르넷 공부방 교사 모집

금성출판사가 푸르넷 공부방을 운영할 지도교사를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이며 전공은 무관하다. 13일까지 거주 지역 지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지원 가능하다.

푸르넷 지도교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되며, 1차 합격자는 4박5일간 교수 방법과 공부방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입문 교육을 받은 후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 이후 지점과 영업국에서 현장 실무 교육과 공부방 참관을 통해 공부방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푸르넷 공부방 홈페이지(www.purunethom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하반기 대기업 공채
2위 공기업 서류전형 철저
3위 커텔 토익시험
4위 고임금 아르바이트
5위 리만십 프로그램
*7월 31일~8월6일 인기 검색 순위

주간 채용캘린더

7(수)	씨제이헬스케어, 체육국학관광재단(신입)
8(목)	닐슨 컴퍼니코리아(신입), 에어부산(신입), 갈렌중공업
9(금)	삼성중공업(경력), 비아이지하이엠(신입), 뉴오텍(경력)
10(토)	DSK 가구제헌
11(일)	생활협동조합(경력), 푸워(신입), 에이디스
12(월)	유씨티코리아, 루비소프트
13(화)	그린솔루션(신입)

* 서류마감일 기준
*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원톱 부담없어…연극하듯 연기"

200만 돌파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

까까머리에 덥수룩한 수염으로 6일 삼청동 카페에 나타난 하정우(35)는 "밤에 보면 무서운 외모"란 농담에 너털웃음부터 시원하게 터트린 뒤 "머리가 조금 자라 그나마 보기에 괜찮다 다음주에 '군도: 민란의 시대' 촬영장인 경북 문경으로 내려가면 또 (머리를) 밀어야 한다"며 아무렇지 않아 했다. 개봉 엿새 만에 전국 관객 200만 고지를 돌파한 '더 테러 라이브'의 흥행 원동력은 이처럼 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인공으로부터 나오는 듯했다.

– 요즘 방송 중인 모 이동통신 광고에서는 깔끔한 헤어스타일로 나온다.

기발를 썼다. 이 몰골로 CF에 나가면 실례다. (웃음) 광고주 처지에서도 허락할 리 없고.

– 가발 품질이 끝내준다. (웃음) 다음에는 가발 CF 모델도 괜찮겠다. 그나저나 '더 테러 라이브'의 흥행 성공을 예상했나.

이 정도로 잘될 줄은 솔직히 몰랐다. 물론 편집본을 보고 어느 정도 자신감은 들었다. 관어름 성수기의 성장부에 뛰어든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오히려 '잘됐다' 싶었다. 하지만 개봉 첫 주 100만 명을 기대했다. 목표를 훌쩍 초과 달성한 셈이다.

– 불안했던 요소도 있었을 듯싶다.

영화적 재미는 충분했지만, 결말이 일반적인 상업영화의 공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어떻게 받을지 대단히 궁금했다. 관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한다.

– 10배 이상의 제작비가 투입된 '설국열차'와 맞붙어 선전하고 있다. 몇몇 영화인들과 "'설국열차'는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정이 가지 않는 반면, '더 테러 라이브'는 단점이 꽤 있지만 정이 간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단점 없는 영화가 어디 있겠나? 그러나 장점이 워낙 돋보이므로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다. '설국열차' 관계자들이 들으면 섭섭해할 얘기다. (웃음)

– 테러범과 위험한 거래를 시도하는 앵커로 나와 '원맨쇼'를 펼친다.

카메라 5대를 한꺼번에 돌려가며 (학창 시절) 연극하는 것처럼 덩어리로 연기했다. 최근 몇 년간 블록버스터 제작 시스템에 젖어 있었는데, 이를테면 초심을 되찾고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였다.

카메라 5대나 돌려가며 앵커 원맨쇼 열연했어요
현재 삭발에 수염 덥수룩…CF 찍을땐 가발 하하

– 원톱으로 너무 빨리 역량을 발휘해 나중이 걱정스럽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다. 혼자서만 극을 이끌어간다는 게 출연을 결심한 이유는 아니다. '원톱이니까 제대로 할 거야' 등과 같은 욕심 내지는 부담감은 전혀 없었다. 다른 영화에 출연할 때처럼 '내가 과연 이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다. 이 작품을 통해 좀 더 노련해질 수 있다면 더욱 고맙고 말이다.

–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야구에서 선발투수가 규칙적으로 등판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연기하고 싶다. 사이클에 적응해가며 일하면 그게 곧 일상이 된다. 10월에 '군도'를 마무리하고 나면 (연출과 주연을 겸할) '허삼관 매혈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6~7개월 정도 준비하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촬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작의 메시지와 내용을 살리되, 중국 소설이므로 우리 정서에 맞는 각색이 필요할 것 같다. 아 참, 가을에는 연출 데뷔작인 '롤러코스터'가 개봉된다.

– 어느덧 30대 중반이다. 건강에 신경 쓸 나이가 됐다.

맞다. (30대 중반이 되면서) 확 무기 다르게 체력이 떨어지더라. 얼마 전부터는 촬영 전날이면 술자리도 피한다. 피로 회소 속도가 예전만 못하고, 운동해도 살이 잘 안 빠진다. 몸 관리가 요즘 내겐 가장 큰 화두다. 그래도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소주 한잔 해야 하는데….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사진/판타지오 제공 디자인/김아람

옥션이 만든 티켓예매 전문사이트

전국 스파,워터파크 옥션티켓에서 지금 예매하세요!

AUCTION 티켓

NELLY TYGA

노이즈랩 도끼 DJ JUICE DJ펑가 레디 루드페이퍼
박재범 with B-Boy Crew 배치기 버벌진트 범키 빈지노 비프리
산이 소울다이브 SHOW ME THE MONEY 2 스윙스
R-EST 이루펀트 이보 팔로알토 피타입 허클베리피

and more
to be announced

9월 7일(토) 킨텍스 제2전시장 8홀

8월 24일(토)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

7월 5일(금) ~ 8월 25일(일)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

7월 27일(토) ~ 8월 18일(일)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예매 옥션티켓 ticket.auction.co.kr 문의 1566-1369

스릴러 합격점…'한방'은 없다

film review

■ 숨바꼭질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단란한 나날을 보내는 사업가 성수(손현주·사진 왼쪽)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존재를 밝히지 않았던 형의 실종 소식을 접하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다. 형이 살던 낡은 아파트를 찾은 성수는 그곳에서 딸과 함께 사는 허름한 행색의 가정주부 주희(문정희·오른쪽)로부터 "당신의 형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제발 좀 말려달라"는 얘기를 듣는다. 어렸을 적 모종의 사건으로 헤어지게 된 형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려워진 성수는 형의 아파트에서 발견했던 정체 모를 기호가 집 현관문 옆에 새겨진 것을 보고 경악한다.

14일 개봉될 '숨바꼭질'은 일종의 '도시 괴담'이다. 인신매매와 장기 적출 등 최근 인터넷과 SNS를 기반으로 떠돌고 있는 '~카더라' 통신에서 모티브를 얻었는데, 대도시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소시민들의 공포가 반영된 우리 사회의 어두운 '거울 속 모습'이기도 하다.

여기에 할리우드 스릴러가 자주 다뤄왔던 익명의 침입자로부터 고통받는 중산층 가족 이야기를 뼈대로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와 강박증에 시달리는 남자 주인공을 앞세워 호러적인 느낌까지 가미해 두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한다.

문제는 출발은 이처럼 나름대로 참신하고 중반까지의 줄거리 전개도 꽤나 박진감이 넘치지만, 성수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범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오히려 동력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다.

극의 축은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낡은 아파트의 미로 같은 구조를 좀 더 치밀하고 음산하게 묘사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날까'란 궁금증을 계속 유지하게 이끌었어야 했다.

또 수시로 던지는 단서들을 촘촘하게 엮지 않고 관객들이 범인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 무릎을 칠 만큼의 강렬한 '한방'이 없어, 과연 '반전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손현주를 비롯한 주요 출연진의 몸을 던진 열연과 1시간 47분의 적당한 상영 시간은 무더위를 쫓기에 그런 대로 제 기능을 다 하니, 굳이 깊게 파고들지 않는다면 여름철 피서용 스릴러로 가볍게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5세 이상 관람가.

/조성준기자

PHOTO

배우보다 빛나는 감독 정우성 영화 '감시자들'의 흥행 성공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정우성이 감독으로 변신한 모습을 공개했다. 그는 모 휴대전화 브랜드 웹 광고의 일환으로 연출한 단편영화 촬영현장에서 자상한 카리스마로 모든 스태프를 사로잡았다는 후문이다.

▶ 앞으로 웬만하면 연출하지 마시죠. 주연 배우가 가뭄이어디 연기하겠어요. /조성준기자

이종석 올해 영화만 세편

'피끓는 청춘'서 카사노바… 박보영과 호흡

이종석(사진)이 안방극장에 이어 스크린에서도 확실한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했다.

6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이하 롯데)에 따르면 이종석은 새 영화 '피끓는 청춘'에서 시골 농고 전설의 카사노바 중길 역을 맡아 '일진' 여학생 영숙 역의 박보영과 호흡을 맞춘다.

롯데는 "1일 전북 순창에서 촬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상반기 개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종석은 다음달 개봉 예정인 '관상'을 시작으로 수영 선수를 연기하는 '노 브레싱' 등 올해에만 세 편의 영화에 캐스팅됐다.

대선주조
어제
과음 한 줄 몰랐다!
뒤끝 없이 깨끗한
예! 괜찮네
기장(機張)삼방산
지하220m 천연암반수
100%
제2회 대선주조 예) 소주 라벨 디자인 공모전
여러분의 부산을 예 소주 라벨로 만들어 주세요
기간 2013. 7. 1 ~ 8. 25
총상금 ₩23,000,000
자세한 사항은 예 홈페이지(www.ye.co.kr)를 참조해주세요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등뽁!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3			1	7		2
			4					
8					3			6
9	1						6	
			6		5			
	6						1	3
4			7					8
					2			
6		9	1			2	5	

	3	4			5			
1	5		3					
		8	9				2	
				5		2		
	4			2			7	
		9		1				
	7				8	3		
					2		8	4
			6			7	1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보누스

캣우먼 · 성에 안 차는 그저그런 남친 어떻게 하죠 남친 모습이 바로 당신 모습 명심하세요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Q Hey 캣우먼!
저를 끔찍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이 남자는 제가 아니면 삶의 목적이 없을 만큼 간절하지만 저는 이 남자가 아니어도 나를 평생 책임질 다른 남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렇고 그런 여자입니다. 전 이 사람과의 결혼을 생각합니다. 가난한 그의 형편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자비조차 없는 현실에 찾아지면서 그와 미래를 꿈꾸는 것이 허망합니다. 사랑을 좇기엔 그를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고 형편을 좇기엔 내가 그리 잘난 여자가 아니라는 이 갈등이 형편없게 느껴지시겠지만 대체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치치

A Hey 치치!
많은 사람들이 하는 흔한 고민이지요. 나는 늘 아까운 존재이지만 막상 또 이만큼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니까. 보통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상황이 변해 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지만 그럴 바엔 내가 먼저 판단을 내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남자와의 결혼만이 가슴 답답한 것만도 아닙니다. 모든 결혼은 도박이고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고 불행하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결혼은 물리적으로 같이 사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열정 이상으로 '편함'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자 이때 편함은 주관적인 느낌이라 내가 어떤 상태를 편하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치관의 일치 말이 통하는 것, 혹은 경제적 안정인지요? 하필 나 좋다고 하는 남자가 애꿎게도 가난한 운명을 타고난 소인배였자 상황은 당신 말대로 쉽게 안 변할 겁니다. 더불어 애초에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나를 평생 책임져줄 남자라는 것도 환상입니다. 당신이 잘난 여자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자학하지만 잘난 여자는 스스로의 인생을 직접 책임집니다. 지금 성에 안 차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당신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니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는 그의 문제가 아닌 너의 문제!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hana.com

영업직 전환했는데 잘 안돼요 힘들더라도 좀더 묵묵히 노력

thobold 남자 72년 10월 3일 음력 오전 3시15분

Q 지난해 말에 아파트 정해 건으로 연구원에 찾아가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업직은 어떨까 물은했는데 나중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해주셨고요. 지난해 말 영업직으로 전환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타 금융업종이나 부동산업계로 업종을 바꿔 이직을 하는 게 나을지요.

A 60갑자(甲子) 조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운(運)의 사행에 놓이게 됩니다. 운이 미약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서 불이 연속적으로 끼일 때는 그냥 앞으로 나가기보다 자신의 허물이나 과오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피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겠으나 힘들수록 묵묵히 일하는 것도 불운을 피해가는 또 다른 방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보세요.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없는데 영업직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 사후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일을 위한 자신의 실력과 일자리 높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낙정관살(落井關殺)에 특징이 있으나 11~12월 사고 유의하세요.

직장·미래 불투명해 걱정인데… 절제하다 보면 뜻밖 신념 생겨

명랑이 음 88년 8월 15일 음력 오후 1시20분

Q 은행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11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은행 정규직 시험을 보고 있는데 잘 되지 않네요. 어떤 직업이 맞을까요? 그리고 동생이 올해 고3인데 학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1994년 12월 26일 오전 4시35분에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자기공학(생명), 기계공학을 생각 중입니다.

A 상담 의뢰하실 때는 남녀 성별 구분을 해주시면 보다 발전적인 상담이 될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일은 묵묵히 자기의 본분을 지키며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일 때 복이 되어 운이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것을 상증합니다. 또한 방법으로 원하는 바가 있을 때 식사 조절을 하는 것도 복을 불러오게 됩니다. 식사를 때마다 식사량을 줄여보는 음식의 절제가 있다면 그 또한 충분함으로 뜻하지 않은 행운이 생기거나 바라는 바가 이루어집니다. 운이 가벼워져서 출근길도 빨라지고 피곤함을 잊게 되나 미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동생은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음력 양력을 반드시 표기해주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좀 올락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산점(算占) 운세 8월 7일(음 7월 1일) 김특수 안생상담 02)677-0541

쥐 48년생 논란이 되는 계하은 접어라. 60년생 조금 모자라는 것이 신상에 좋다. 72년생 걱정이 풀어질 일 생기니 기대하라. 84년생 방심하면 목표 달성 힘들다.

소 49년생 부부 나들이가 즐겁다. 61년생 경사 축하 전파로 집안이 시끌벅적. 73년생 상상한 패도 즐거운 만남이 기대된다. 85년생 까칠한 빛 먹잖이 부글부글.

호랑이 50년생 일은 행우 보란 듯이 해낸다. 62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 있을 듯. 74년생 잠난 선배 집 때문에 이야기 두겁다. 86년생 프러포즈 길일이니 놓치지 마라.

토끼 51년생 되는 일이 없어 마음만 급하구나. 63년생 꼬인 일은 대안 찾는다. 75년생 후배에게 본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 87년생 문제의 해답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용 52년생 마음 비우면 일이 사라진다. 64년생 어려운데 의존할 우군이 왔구나. 76년생 우물 안 경쟁은 백해무익하다. 88년생 자기 과시 위한 오만은 용서하지 마라.

뱀 53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지연될 듯. 65년생 조건이 까다로우면 외면당한다. 77년생 새 일은 신중하되 과감하게 접근하라. 89년생 한 가지에 몰입하면 뜻 이룬다.

말 42년생 눈을 나게 고마 좋던 운만 판난다. 54년생 문서 일은 당분간 미뤄라. 66년생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면 피곤해진다. 78년생 풀릴 수 없는 고민 생긴다.

양 43년생 여행 나서면 고생길. 55년생 돈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문제가 된다. 67년생 적당한 일에으로 긴장감 유지하라. 79년생 지지부진했던 일 잘 잡는다.

원숭이 44년생 따뜻한 이웃 덕분에 즐겁다. 56년생 말이 달콤한 사람과 눈길도 마주하지 마라. 67년생 모험에 가면 잘난다. 80년생 꼬인 줄 곧 풀리니 조금만 버텨라.

닭 45년생 백수자의 속사정 잘 살펴라. 57년생 월자리는 멀리 일어나는 게 어렵다. 69년생 생각지도 못한 곳 근돈 생겨 행복한 고민. 81년생 비어남거리면 박봉 있는다.

개 46년생 가족이 최고라는 것 실감한다. 58년생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할 것. 70년생 공격보단 방어적 자세가 이롭다. 82년생 돈과 관련된 일은 총리 정리할 것.

돼지 47년생 입은 닫고 귀를 열면 편안. 59년생 어수선한 집안 안정된다. 71년생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83년생 상사의 충에기 부담스러우나 기분은 좋다.

마지막 4중주

A LATE QUARTET

인생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불협화음

아카데미상에 빛나는 최고의 배우들의 완벽한 앙상블

필립 시모어 호프먼 크리스토퍼 월켄 캐서린 키너

15세 이상 관람가

7월 25일, 잊지 못할 감동의 마지막 연주에 초대합니다!

새로 나온 책

고작? 3평 집의 행복마술

에세이

진짜 여자가 되는 법 케이틀린 모란/돋을새김

영국 '타임스'의 인기 코너 '셀러브리티 워치'의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들이 진짜로 하고 싶었지만 정작 할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명쾌하게 전한다. 너무 솔직한 여성은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은지, 성생활을 적극적으로 늘어놓는 친구들은 불편하지 않은지 등 여성들이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들을 모두 담았다.

어제 쓴 글이 부끄러워 오늘도 쓴다 최주영/이지북

부유하는 자신의 삶과 그런 아들을 지켜보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소소한 일상이 담겼다. 탄탄한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인기 대중강연가의 입담이 녹아든 문장은 빠르게 읽힌다. 다만 가벼운 일상과 행간 사이에 놓인 섬세하고 꾸준한 삶의 자세는 독자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인문

시민지 불온 열전 정종목/역사비평사

일제강점기 통치 권력이나 기존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나 기질을 보이는 '불온'한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있다. 저자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라는 거대 역사 대신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들에 주목하고 그들의 삶과 일상, 저항을 복원해냈다.

글 짓는 법 박수밀/들녘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로 알려진 연암 박지원의 글쓰기 정신과 전략을 탐구해 도구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폭력적 글쓰기에 적용한다. '글이란 뜻을 드러내면 그만일 뿐'이라는 연암의 말을 빌어 창작 활동의 기초는 문제의식이라고 역설한다.

교육

혼자 노는 아이 함께 노는 아이 스테판 클렌핸/한국경제신문

숙제를 하다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연필을 바닥에 내던져버리고 숙제를 하지 않는 아이, 독불장군처럼 제멋대로인 아이를 부모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금세 지쳐버린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라는 이유로 저자는 사회성 부족을 든다. 부모는 아이의 편에 서서 사회성을 키워줄 파트너가 돼야 한다. 책은 부모 스스로 팔은 팀을 이루고 아이를 협단한 팀원으로 만든 양육 지식를 정리했다.

어린이

엄마의 등 학교 고정욱 지음/키즈엠·큰북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저자를 매일 업고 학교에 등교했던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를 동화로 썼다. 어머니는 아들을 업고 매일 학교를 힘들게 다니면서 구구절절한 잔소리 대신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들은 책을 통해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다.

시그락 불불불 쏙! 박승권/단비어린이

엄마가 깨우기 전에 잠에서 일어난 내가 부엌에서 나는 아침 준비 소리에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시그락 시그락' 쌀 씻는 소리와 '또각또각' 칼질 소리를 듣고 모래놀이와 구두 발자국을 떠올리는 등 재미있는 의성어가 상상력과 어휘력을 자극한다.

작은 집을 권하다 다카무라 토모야/책읽는수요일

"큰집=빚, 규모 줄이니 삶 여유" 집 줄이자 소유욕망도 줄어든 스몰하우스의 놀라운 힘 예찬

작아도 참 작다. 겨우 3평(9.9㎡) 정도이니 덩치 큰 남성 한 명이 서면 거의 반이 찬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900ℓ 대형 냉장고 신제품이 들어갈 수나 있을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스몰 하우스'에 살고 있고, 또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9년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제이 셰퍼는 어느 날 일을 그만두고 작은 집을 짓기 시작한다. 이유는 단출했다. '많은 물건과 공간에 신경 쓰는 게 귀찮아서'였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며 살림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제외하는' '뺄셈 스타일'로 집을 설계했다.

1층에 작은 소파와 욕실, 개수대, 가스레인지, 책상, 책장을 놓고 그 위 지붕 아래에 침대를 둔 형태다. 얼어다 보니 집은 주차장에 자동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어진 크기였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 같은 스몰 하우스가 들어서기 시작한다.

저자 또한 일본 도쿄 인근에 세 평 남짓한 작은 집을 짓고 산다. 집이 작아졌을 뿐인데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한다. 집세나 대출금 걱정이 없어지고 생활비 부담이 덜어지면서 더 나은 삶을 모색할 여유가 생겼다.

그는 다양한 목적으로 스몰 하우스를 짓고 사는 여섯 명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큰 집에 대한 소유 욕망이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스몰하우스는 섬에 안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은 집이 작으니 살림살이가 무소유에 가까워지고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서 더 행복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호주 멜버른 인근에 사는 데이비드 벨은 스몰 하우스를 "누구라도 손에 넣을 수 있는 로컬 유토피아"라고 말한다. 새의 둥지처럼, 어린아이의 작은 종이상자 아지트처럼 작은 공간에 살다보면 자유로운 자아를 만나게 된다고.

예전 한 150kg까지 몸무게가 불었던 그레고리 존슨은 스몰 하우스에 살며 살을 빼고 저온을 하는 등 새로운 출발을 했다고 말했다. 요즘 유행어를 보태 표현하자면 단언컨대 너무 큰 집은 집이라기보다 '채무자의 감옥'이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집을 작게 하고 물건 사들이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상당한 시간과 돈을 가져다주었다. 미국 워싱턴주 환경보호과에서 일하던 디 윌리엄스는 그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 스몰 하우스를 세상에 알리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기능적이고 아름다우며 생태 환경에 좋은 집을 짓는 회사를 차렸다. 사진은 자신의 집에서 스몰 하우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윌리엄스. /책읽는수요일 제공

골프·낚시·사진…책으로 입문해 볼까

모처럼 여유가 생기는 여름휴가 기간은 그동안 하고 싶던 취미 활동의 첫발을 떼기 좋은 기회다. 고수들이 전하는 비법에 귀 기울여보자.

/권보람기자 kwon@

까치 이현세의 골프가 뭐길래 이현세 그림/박순표 글/새론

만화가 이현세의 실감 나는 삽화로 제작된 1기월 골프 입문서. 비거리를 늘리고 방향성을 높이는 '스윙의 비법'과 상급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족집게 레슨 97개를 수록했다.

스윙의 비법 편에서는 일반적인 골프 교습 순서인 '똑딱이→하프스윙→풀스윙' 순서를 따라가기보다 골프 스윙의 핵심인 체중 이동과 스윙축 만들기를 사진·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족집게 레슨에서는 실전 능력을 키워주는 연습법과 롱아이언 쉽게 치기, 벡스핀 만들기 등 좀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노하우를 전달한다.

짜릿한 손맛, 낚시를 시작하다 김지민/우듬지

한국블로그산업협회 취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낚시 파워블로거가 저자다. 책에는 낚시의 모든 것을 원조사 '채비조작' '조황' 휜투성 등 초보들에게는 생소한 낚시 용어와 함께 참고개별 낚시 난이도, 장비 구입법, 잡은 고기 요리하기 등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프로페셔널 사진의 조건 도창현/비즈앤비즈

별도의 조명 장비 없이 외장 플래시 하나로 스튜디오에서 오랜 활영한 듯한 효과를 내는 사진 기술을 소개한다. 초급자를 위해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 플래시, 색 감설정법을 도해와 함께 수록하고 그 뒤에 실전 촬영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리얼예능 해? 말어?…딜레마 빠진 연예인들

**체험프로그램 생고생 일쑤
'일밤-아빠 어디가' 출연땐
자녀들의 사생활 노출 우려**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진짜 착한 예능은 없다?

출연진의 생고생이나 사생활을 보여주는 리얼 예능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연예인들이 출연을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했다.

군 생활을 체험하는 MBC '일밤-진짜 사나이', 정글 생존기를 그리는 SBS '정글의 법칙'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MBC '파이널 어드벤처',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등 비슷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지만 연예인들에게 예전만큼 환영받진 못하는 분위기다. 출연진들은 육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부상을 당하는 일도 잦아졌기 때문이다.

사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MBC '일밤-아빠! 어디가?'처럼 아이들이 출연하는 경우 자녀를 둔 연예인으로서는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자녀의 사생활 노출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서다.

한 중견 배우는 "예능에 출연하고 싶지만 자녀의 사생활 공개나 생고생을 요구받아 결국 거절했다"면서 "예능 프로그램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인지도와 인기를 높일 기회기 때문에 가능하면 출연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니 자녀에게 피해가 가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소속 연예인에게 강요하긴 힘들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놨다.

출연을 결정한 후에도 사생활 노출로 인한 피해나 부상 등 만만치 않은 부작용 때문에 하차를 고민하는 출연진도 꽤 있다.

25일 시작할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출연을 앞두고 다이빙 연습에 한창인 한 남자 배우는 "얼마 전 뛰어내리다가 수면에 잘못 부딪히는 바람에 다쳤다"면서 "부상을 입고 나니 다이빙대에 오를 때마다 두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톱스타들 동물사랑에 푹 빠졌다

김재중 동물다큐 내레이션 · 박영수 음원 수익금 일부 기부

톱스타들이 잇따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JYJ의 김재중은 12일 방송될 MBC 다큐 스페셜 '동물원이 살아 있다 2'의 내레이션을 맡았다. 1급 멸종 위기동물들의 종 보전을 위한 동물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김재중은 이번주 녹음을 진행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재중이 평소에도 동물에 대한 애정이 많아 다큐 내용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중은 "동물들과 특별한 교감을 하는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다. 시청자들이 힐링 타임을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3월 방송된 '동물원이 살아 있다' 첫 번째 시리즈에는 JYJ의 김준수가 내레이션을 맡아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호평을 받았다.

개그맨 박영수는 신곡 '아쿠아 파라다이스'의 음원 수익금 일부를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에 기부한다.

신곡을 작곡·편곡·프로듀싱한 박영수는 "13년 만에 내놓은 '바다의 왕자' 시즌2 형식의 곡으로 해양생물 보존의 가치를 공유하고 공생하는 즐거움을 담고자 노력했다"며 "13년째 '바다의 왕자'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바다에 대한 애착이 컸는데 이번 기회를 맞아 바다 생물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우 현빈은 자신이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함께 동물 보호에 나선다. 8일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에서 열리는 '삼성 UHD TV와 함께하는 멸종위기동물전'의 오프닝 행사를 진행하며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

/유순호기자 suno@

예비신랑 지성 '비밀'서 황정음과 치명적 멜로

'이보영이 싫어하겠네'

배우 지성(사진 위)이 예비신부 이보영 대신 황정음(아래)과 치명적인 멜로를 합작한다.

지성은 KBS2 새 수목극 '비밀'에서 오기와 복수에 불타는 재벌 2세 민혁 역을 맡아 황정음과 연기 호흡을 맞춘다. 황정음은 남자에게 인생을 희생하고 배신당했지만 새롭게 일어서는 강인한 여자 유정 역을 맡았다.

다음달 방영될 이 드라마는 자신의 연인을 살해한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정통 멜로물이다.

제작사는 "지성과 황정음은 '비밀'이 그려내고자 하는 치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제대로 보여줄 최고의 캐스팅"이라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성은 오랜 연인인 이보영과 다음달 27일 W 서울 워커힐 호텔 애스톤 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이현정기자

'맘마미아' 英 오리지널팀 첫 내한

11월 26일부터 공연 열려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 팀의 내한 공연이 처음 열린다.

신시컴퍼니는 6일 "한국 공연 10주년을 맞아 영국 오리지널 공연팀을 초청했다"면서 "첫 내한 공연이 11월 26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국내 공연은 2004년 1월 25일 초연된 후 한국 공연 역사상 최단 기간 1200회 공연과 150만 관객 돌파의 흥행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티켓 예매는 6일 시작됐다. /박란희기자

가을 옷 입은 수지 성숙한 걸
걸그룹 미쓰에이가 사랑스러운 가을 여신으로 변신했다. 이랜드의 SPA 브랜드 로엠이 미쓰에이를 탁제한 가을 화보를 공개했다. 로엠은 이번 시즌 클래식하면서도 볼륨감을 강조한 우먼 라인과 독특한 프린트를 더한 에스닉 룩 라인, 등 다양한 콘셉트의 옷을 선보였다. 추가 화보는 로엠 홈페이지(www.roem.com)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웃도어 전용 비트 신제품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는 CJ라이온과 손잡고 아웃도어 전용 세제 '비트 아웃도어 나노워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어텍스와 같은 기능성 섬유 세탁에 적합하게 개발된 세제로 비트의 나노 세정 성분을 통해 통기 구멍의 숨은 때와 피지 등을 섬유 손상 없이 녹여내고 기능성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수 탈취 성분 'Zn-MGDA'를 넣어 땀 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기능성 의류 평가 항목 테스트인 투습 발수·내수를 통과해 제품력도 입증받았다.

손세탁이나 드럼세탁기에 두루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1만원(800㎖). /박지원기자

<화장하는 오빠 친구같은 아빠>

'빠빠의 큰손' 잡는 소비 새바람

화장품·백화점 문화센터 강좌 '남성전용' 속속 등장

젊은 오빠 젊은 아빠가 유통업계 큰손으로 떠오르면서 뷰티·유통업계가 '남심(男心)'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요 화장품 브랜드는 남성 전용 라인을 새롭게 선보이고, 백화점 문화센터는 낚시 비즈니스 화법 등 남성들이 솔깃할 강좌들을 개설해 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헬스 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은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2535세대 남성을 위한 '엑스트림 스타일 옴므'를 선보였다.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액티브한 남성을 위해 기초 화장품 기업 참존과 공동 개발해 선보인 CJ올리브영이 처음 선보인 남성 스킨 케어 브랜드다. 제품은 피부 자극은 최소화하고 유분감 없이 산뜻하게 스며드는 것이 특징이다.

LG생활건강은 국내 화장품 기업 최초로 백화점 전용 고급 남성용 화장품 브랜드 '까쉐'를 론칭했다. 토너 로션 에센스 등 기초 제품부터 선 제품, 비비크림까지 총 22종을 선보였다. LG생건 강병영 상무는 "올해에도 남성 화장품 시장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소비 연령층이 확대되고 해마다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까쉐를 통해 기존에 수입 브랜드들이 장악했던 고가의 남성 제품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낚시·아이와 함께하는 강좌 다수

여성이 주 타깃이었던 백화점 문화센터도 남성 회원 확보에 혈안이다.

롯데백화점 문화센터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특강은 파워블로거 김지민씨의 '세련된 손맛, 낚시를 시작하다'를 비롯해 '요리하는 남자가 아름답다', '성공하는 남성의 남다른 슈트 연출' 등으로 구성된다. 롯데가 남성만을 대상으로 문화센터에 전용 강좌를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백화점도 올여름 업계 최초로 신설한 '아빠랑 아이랑' 강좌를 10% 확대, 강좌 수를 220여 개로 늘릴 방침이다. 골프 오징어 잡기 어선 승선 체험 등을 경험하는 패밀리 풀시캠프·한강 크루저 요트체험 등 프로그램도 다양화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친구 같은 아빠를 일컫는 프렌디(Friendy) 문화가 확산되면서 자녀와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려는 남성 고객의 문의가 폭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기와 얹고 디딤돌 놓고…한옥 카페 바람

디초콜릿·할리스커피 등 경주보문 이색매장 오픈 아티제 삼청점도 전통미

이름부터 이국적인 현대식 카페들이 기와지붕을 올리고 창호문을 들였다. 거리 고유의 분위기를 얻고 카페 자체를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수제 초콜릿 커피전문점 디초콜릿커피는 전통의 멋을 담은 경주 보문점을 최근 오픈했다. 신라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유적지에 어우러지도록 모던한 느낌의 기존 인테리어를 유지하는 대신 지붕에 기와를 얹어 올려 한옥의 정갈함을 살렸다. 보문단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카페에서도 명승지의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테마 매장으로 꾸몄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할리스커피는 경주 보문단지와 불국사를 잇는 보불로에 지난달 한옥 매장(위 사진)을 냈다. 목조를 활용한 건물과 기와지붕으로 한옥의 멋을 살리고 과감하게 한글 간판을 사용해 색다른 느낌을 더했다. 바리스타 공간을 제외한 모든 벽에는 넓은 창호문을 내 겉에서 보면 카페인지 잘 꾸민 한식당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아티제는 유러피언 스타일이란 브랜드 콘셉트를 과감히 포기하고 1920년대 목조 지붕을 그대로 살린 삼청점(아래)을 최근 오픈했다. 프랜차이즈 카페로는 이례적으로 좌식 테이블을 설치했다. 자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디딤돌까지 마련해 동양의 생활 방식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천장에는 나무판에 서까래를 연상시키는 통나무를 덧댔다.

아티제를 운영 중인 보나비 관계자는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인테리어나 메뉴 등은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명소로 알려질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전했다.

/김보람기자 kimbr@

KT&G '상상실현 페스티벌' 대학생 기획단 지원하세요

KT&G가 오는 11월 열리는 '상상실현 페스티벌'에서 운영 스태프로 활동할 대학생 기획단 '드림 크루'를 18일까지 모집한다.

드림크루는 페스티벌 전 과정을 함께 만들어가며 전문 공연기획사와 연계한 교육과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관련 역량을 기르게 된다.

공연 기획 및 페스티벌에 관심 있는 대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sangsanguniv.com)에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10명을 선정, 활동비와 식사를 제공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참여 인증서도 발급해준다.

비비안 '볼륨키퍼' 브라 출시

비비안이 형상기억합금 소재의 와이어를 사용한 신상품 '볼륨키퍼' 브래지어 출시를 기념해 10일부터 16일까지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볼륨키퍼 브래지어 세트를 구매한 고객에게 여행 갈 때 속옷을 가지런히 정리해 챙겨갈 수 있는 휴대용 속옷보관함 '볼륨키퍼 파우치'를 증정한다. /박지원기자

신부 잠버릇 고민 '투 매트리스'서 쿨쿨

가을 결혼시즌 앞둔 가구·침구업계 신제품 봇물

날씨는 한여름이지만 가구·침구업계는 이미 가을 속으로 들어가 결혼 시즌 경쟁을 치르고 있다.

가구업체 나지안네치스는 2010년 출시 당시 완판 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끈 프리미엄 소파 '에드리아'를 업그레이드해 재출시했다.

'뉴 에드리아'를 신혼부부에 어울리게 일반 가죽보다 강도가 강하고 통기성이 좋은 이탈리아산 천연 소가죽으로 감쌌다. 내장재는 살균 처리한 오리털을 넣었다. 색상은 아이보리와 카푸치노 2종으로 화사하고 우아한 느낌을 살렸다.

침구기업 이브자리는 일찌감치 혼수용 신제품 3종을 최근 출시했다. 예비 부부 200명을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어 33대 1의 경쟁을 뚫은 전략 제품들이다. 은은한 그레이 컬러에 은은하게 반짝이는 실버 패턴을 더해 모던한 '글리터'와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큐비즘', 잔잔한 꽃무늬가 새겨진 '보엔'으로 구성됐다.

매트리스 신제품 또한 연이어 나오고 있다. 남다른 기능을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세리타는 통기성이 좋은 신소재 원단인 3D 미스트랄을 사용해 숨쉬는 매트리스란 수식어를 단 '브리더블'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3D 미스트랄은 내부에 80% 이상 공기를 머금고 있어 엎드린 자세에서도 호흡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통기성이 우수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씰리침대는 기존에 쓰던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단 매트리스 신제품 '세미플렉스'를 선보였다. 전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는 일체형 스프링을 탑재해 상단 매트리스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도록 한 제품이다.

씰리코리아 마케팅 담당 구민정 과장은 "투 매트리스로 사용하면 하단 매트리스가 잠자면서 몸을 움직일 때 상단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분산시켜 보다 편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고 상단 매트리스의 수명까지 연장해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씰리침대는 이달 말까지 씰리의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미국 직수입 '씰리 티타늄 포스처피딕 매트리스'를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열어 예비 부부를 잡는다.

/전효순기자 hsjeon@metroseoul.co.kr

스무디킹 미래는 "건강한 커뮤니티"

김성완 대표 창립 40주년 기념 새 로고 공개

스무디킹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진행된 '2013 스무디킹 프랜차이즈 콘퍼런스'에서 브랜드 재정립 비전을 선언하고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스무디킹 프랜차이즈 콘퍼런스는 미국 전역의 600여 개 가맹점주들이 모이는 연례 회의로 올해는 특별히 창립 40주년과 김성완 대표의 미국 본사 인수 1년을 맞아 현지 관계자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됐다.

김 대표는 본사 인수 후 1여 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로 살도록 북돋워라(Inspire people to live a Healthy and Active Lifestyle)'라는 브랜드 미션을 재정립했다. 이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환경에서 최고의 영양을 담은 스무디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들과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함께하는 '홀시 앤 액티브 라이프스타일 센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스무디킹이 새롭게 공개한 브랜드 로고는 기존의 클래식함을 벗고 감각적인 이미지로 발전됐다.

3명의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 로고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스무디킹을 통해 만날 건강한 커뮤니티를 상징한다. 브랜드 네임의 폰트는 모서리를 곡선 처리해 기존 서체에 친근함을 더했으며 왕관과 통일성 있는 서체로 쓰이진 소문자 'i'는 스무디킹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대표는 "스무디킹은 40년간의 업계 노하우를 축적해온 글로벌 브랜드"라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스무디킹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스무디킹의 브랜드 퀄리티와 건강한 제품을 알리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스무디킹의 새 얼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무디킹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식음료 프랜차이즈 경험을 가진 새로운 마케팅 부사장을 임명하고 더욱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전문가 발탁을 통해 김성완 대표의 공격적인 글로벌 전략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보람기자

광주요·로얄코펜하겐 매장도 예술

서울·대구에 각각 문열어

우리나라 도자 식기 브랜드 광주요와 덴마크 도자기 브랜드 한국로얄코펜하겐이 각각 브랜드 콘셉트 매장을 열었다.

광주요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준비한 매장(왼쪽 사진)은 서울 한남동에 둥지를 틀었다. 검은 먹과 도자기를 닮은 푸른 빛깔로 꾸민 매장에 우리 옛 찬장을 응용한 수납장과 광주요의 그릇들을 놓아두었다. 전통 도자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파고들고 발전돼 왔는지 보여준다는 의도다. 앞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www.ekwangjuyo.com

한국로얄코펜하겐은 지난달 30일 현대백화점 대구점 내에 단독 브랜드 룸(오른쪽)을 선보였다. '덴마크의 집'을 주제로 덴마크 가구 전문점 덴스크, 조명 브랜드 루이스 폴센과 협업해 덴마크 사람들의 일상적인 공간을 재현했다.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으로 23일 방문객들에게 홍차와 쿠키를 제공하는 '티 나 위 티 파티'를 연다. 문의 www.royalcopenhagen.co.kr /전효순기자

세프의 맛·영양사의 건강 담은 '수험생 도시락'

트루라이프의 건강 식단 브랜드 호밀이 국내 최초로 수험생을 위한 건강 도시락 프로그램 '호밀B'를 출시했다.

특급 호텔 출신 셰프와 전담 영양사가 필수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고 하루 야채·과일 권장 섭취량 80% 이상을 충족시켜 두뇌활성·소화분량·비만 예방에 적합하도록 설계했다. 호밀B는 아침 식사와 한끼 간식 브레인 키트, 야식용 스마트 샐러드 1일 1세트로 구성된다.

아침 식사는 과일 3종과 함께 석잠포·칡·돼지감자 등을 우려낸 건강음료가 제공된다. 특히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선 메뉴가 주 1회 포함된다.

호밀B는 4주분(월~금요일 평 20회) 가격은 30만원이며, 조리하자마자 보냉 가방에 넣어 가정까지 안전하게 배달해준다. 문의 www.homeal.net 080-599-1799

타파웨어 냉동전용 용기 한정판 '펭귄 플라워세트'

글로벌 생활용품 브랜드 타파웨어 브랜즈가 '펭귄 플라워 세트'를 8월 한정 출시한다.

타파웨어의 냉동 전용 용기인 펭귄 시리즈에서 베스트셀러 사이즈만 모아 화사한 색을 더한 제품으로, 퍼플·블루·라임·핑크의 4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용기 하단의 가운데 부분이 굴곡지게 디자인돼 냉동실 안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빠르고 냉동이 된다. 300㎖부터 3.3ℓ까지 사이즈가 다양하다.

문의 www.tupperwarebrands.co.kr

두산, 넥센 꺾고 3위 도약

LG, NC 제압…1위 맹추격
롯데, KIA 잡고 연패 탈출

두산 베어스가 넥센 히어로즈를 꺾고 63일 만에 3위 자리를 탈환했다.

두산은 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홈 경기에서 윤명준의 호투에 힘입어 넥센을 5-4로 이겼다.

두산이 3위 자리를 차지한 것은 잠실 LG전에서 승리한 6월4일 이후 63일 만으로, 이날 승리로 48승 2무38패를 기록하며 넥센(47승1무38패)을 4위로 밀어냈다.

4이닝을 던진 선발 이재우에 이어 5회 무사 1루에서 등판, 2⅓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 하나씩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은 윤명준이 시즌 첫 승리(1패)의 기쁨을 누렸다.

LG는 창원 마산구장에서 정성훈의 2점포 등을 앞세워 NC를 5-1로 눌렀다. 51승35패로 2위를 기록해 1위 삼성(52승2무31패)과의 승차를 줄였다.

6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에서 5회초 두산 윤명준이 역투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홈팀 롯데가 KIA에 5-3으로 승리했다. 롯데 선발 쉐인 유먼은 6⅓이닝을 4피안타 2볼넷 2실점으로 막아 최근 5연승과 함께 시즌 11승째(3패)를 거두고 다승 부문 단독 1위로 나섰다.

이날 패배로 6위 KIA는 4위로 한 계단 떨어진 넥센에 6경기 차로 뒤져 포스트시즌 진출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한편 청주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화-SK 경기는 비로 취소됐다.

/박선영기자 lsk0427@

프로야구 전적

■ 잠실

팀	1-3	4-6	7-9	R
넥센	003	010	000	4
두산	040	000	10X	5

■ 사직

팀	1-3	4-6	7-9	R
KIA	000	100	200	3
롯데	000	221	00X	5

■ 마산

팀	1-3	4-6	7-9	R
LG	002	002	010	5
NC	000	100	000	1

근호 뽑히고 동국 또 빠지고

홍명보호 2기 대표명단 발표

물오른 조찬호·임상협 포함

페루와의 평가전에 나설 '홍명보호 2기'의 면면이 드러났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페루와 상대할 선수 2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최근 K리그에서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는 조찬호(포항 스틸러스·사진 왼쪽)와 임상협(부산 아이파크·오른쪽)이 발탁됐다.

올 시즌 9골을 기록 중인 조찬호는 2011년 온두라스와의 평가전 이후 2년 만에 다시 합류했고, 이달 초 경남 FC전에서 해트트릭을 터트린 '꽃미남 공격수' 임상협은 수원 삼성의 스트라이커 조동건과 함께 처음으로 승선했다.

동아시안컵에서 제외됐던 베테랑 골잡이 이근호(상주 상무)도 복귀했다.

그러나 이동국(전북 현대모터스)은 이번에도 부름을 받지 못했다. 홍 감독은 "(공격진을 위주로) K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선발했다.

지난 대회(동아시안컵)의 수비와 미드필더 조합은 큰 문제가 없었다"며 "9월부터는 유럽파들을 모두 불러들여 컨디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기 홍명보호'는 경기 이틀 전인 12일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에 소집된다.

/조성준기자 when@

귀국한 박인비 "초심으로 돌아갈 것"

'캘린더 그랜드슬램' 달성에 실패한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위해 마음을 다잡는다.

박인비는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마치고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았는데 (메이저 4연승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 시즌 3개 메이저대회를 석권한 박인비는 세계 최초로 한 시즌 4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노렸지만 이번 대회에서 공동 42위(6오버파 294타)로 부진했다. 그러나 다음달 열리는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면 여자 프로골프 사상 한 해에 4개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하는 첫 그랜드슬래머가 된다. 에비앙 마스터스는 올해 메이저대회로 승격됐다.

박인비는 "에비앙에서는 이번 브리티시오픈에서 얻은 경험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난해 좋은 성적을 냈던 코스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박인비가 브리티시 여자오픈을 마치고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올 시즌 목표였던 '올해의 선수상'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최나연(26·SK텔레콤)은 "중간에 심리적으로 무너져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 마지막 메이저대회(에비앙 마스터스)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또 "인비에게 자극을 많이 받는다. 골프장 밖에서는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고 응원하지만 경기에서는 경쟁심을 가져야 한다"며 박인비와의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유순호기자

뉴욕 양키스의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6일 시카고 화이트 삭스와의 경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뉴시스

'ML 스타' A로드 211경기 못뛴다

금지약물 복용 혐의 중징계
사실상 현역복귀 어려울듯

미국 프로야구 최고 몸값 스타 알렉스 로드리게스(38·뉴욕 양키스)가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6일 경기력 향상 약물을 사용한 혐의로 로드리게스에게 내년 포스트시즌까지 211경기 출전 금지를 명령했다.

메이저리그 사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복귀 시점인 2015년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로드리게스의 현역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로드리게스는 금지약물 복용뿐 아니라 동료 선수들에게 소개하는 역할까지 해 이 같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리게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판단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로드리게스는 3420만 달러(약 384억원)의 연봉을 받지 못한다.

1994년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데뷔한 로드리게스는 19시즌 동안 647홈런 1950타점, 타율 0.300을 기록했다.

2007 시즌이 끝난 후 양키스와 10년간 2억7500만 달러(약 3088억원)를 받는 대형 장기 계약을 맺는 등 13년 연속 연봉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메이저리그 최고 스타다.

9일부터 징계가 적용돼 6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출전한 로드리게스는 경기 내내 관중의 야유 세례를 받았다. 고관절 수술 이후 10개월 만에 복귀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한편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날 로드리게스를 비롯해 넬슨 크루즈(33·텍사스 레인저스), 조니 페랄타(31·디트로이트 타이거스) 등 13명에게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징계를 내렸다. 로드리게스를 제외한 12명은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순호기자 suno@

박지성 에인트호번행 1년간 임대 최종확정

박지성(32·퀸스파크 레인저스 이하 QPR·사진)의 에인트호번행이 최종 확정됐다.

박지성은 6일(한국시간) 새벽 에인트호번과 1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8일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협단 절차에 속도를 냈지만 기간과 연봉 등에 이견이 생겨 최종 계약이 지연됐다.

에인트호번은 박지성의 완전 이적을 요구했고, 박지성은 1년 임대를 주장해왔다.

연봉도 박지성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박지성 측은 "QPR에서 받던 연봉과 에인트호번이 줄 수 있는 연봉의 차액이 커서 QPR이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에인트호번이 연봉 상한선인 100만 유로(약 14억7000만원)를 주고, QPR이 5억원 정도를 보전해 박지성의 총 연봉은 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유순호기자

전국민 기초영어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What time do you get up every day? 일상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당신은 매일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일찍 펴요.
저는 아침으로 주스, 시리얼, 토스트, 커피를 먹어요.
저는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도착해요.
저는 보통 밤 12시쯤에 잠자리에 들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What time do you get up every day?
I usually wake up early
I have juice, cereal, toast, and coffee for breakfast
I get to work at nine o clock every morning
I usually go to bed at about midnight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화)기

▶ 짧은 대화 훈련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at do you usually have for breakfast?
B I have juice, cereal, toast, and coffee 아침으로.

정답 for breakfast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I usually [get up / eat dinner] early. Do you?

2 I usually go to bed at about [midnight / 10]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 1

may & might

▶ may/might+동사원형 (부정 may not / might not)

1 추측 ~할지도 모른다(현재나 미래 일을 추측할 때, 30~50%의 가능성)
The team might not win. 그 팀이 이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2 허락 ~해도 된다(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얘기할 때 많이 사용)
You may use my computer. 내 컴퓨터 써도 된단다

▶ 핵심문법 확인학습_우리말을 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1 지금 가도 된단다. You ______ ______ now.
2 수잔이 틀렸을지도 몰라요. Susan ______ ______ wrong.
3 제가 이것을 좀 봐도 될까요?
______ ______ take a look at this?

정답 1 may leave / 2 might be / 3 May I

TOEIC ▶ ETS TOEIC Test RC 공식실전서 1000

01 Duties have been divided ______ among the town council committee members.
(A) even (B) evened
(C) evenly (D) evenness

02 Orders from the warehouse in Perth ______ arrive in five to seven days.
(A) typify (B) typified
(C) typical (D) typically

01. [illegible]
해설 [illegible]
어휘 [illegible]
정답 (C) evenly

02 [illegible]
해설 [illegible]
어휘 [illegible]
정답 (D) typically

TOEIC Speaking ▶ Jump Up TOEIC Speaking Intermediate

Part 4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시간 정보 말하기

Q What time will the workshop start? 워크숍은 몇 시에 시작하나요?
A It will start at 9 a.m. 그것은 오전 9시에 시작할 것입니다.

Q What time will the workshop finish? 워크숍은 몇 시에 끝나나요?
A It will finish at 5:30 p.m. 그것은 오후 5시 30분에 끝날 것입니다.

● at | 시간 정보 말하기
It will begin at 9 a.m. 그것은 오전 9시에 시작될 것입니다.
It will end at 5:30 p.m. 그것은 오후 5시 30분에 끝날 것입니다.

▶ until | ~까지
It will be held until 5:30 p.m. 그것은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ETS TOEIC 공식수험서 100만 부 돌파!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tvN

매주 |목| 밤 11시 tvN 방송